

청년 · 취약계층 · 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
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

2026. 3.

금 융 위 원 회
서민금융진흥원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현황 및 문제점	2
III.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	4
IV. 향후계획	11

I. 추진배경

- 그간 정부는 서민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
 - 저소득·저신용자 중심으로 매년 6~7조원을 공급하는 등 양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정착되었다고 평가
 - 금년 들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인하*하고,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이자페이백**을 지원하는 등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
 - * 햇살론 특례보증, 불법사금융예방대출 : (~'25년) 15.9% → ('26년~) 12.5%
 - **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 50% 페이백 → 실질금리 6.3%
- 다만, 지원대상·심사방식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다 보니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의 차별화된 수요 충족이 제약
 - ※ 예: 아직 소득이 없어 소득증빙이 불가능한 사회진입 준비청년은 햇살론 이용 불가
 - 특히, 금융이력 부족에 따른 청년층 금융접근성 제약,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방 등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계층별 구조적 문제에 대한 특화된 지원이 필요
 - 제도*로서 정착한 現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급변하는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적시에 해소하기에 근본적인 한계**
 - * 정부예산 등을 재원으로, 서민금융법령에 근거하여 정책서민금융 지원
 - ** 법령 개정 및 정부예산 편성 등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
- 취약계층이 처한 상황에 맞는, 보다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現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
 - 현장중심 밀착형 지원을 통해 개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

➔ 現 서민금융 지원체계에 더하여, 청년 등 취약계층의 차별화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

II. 현황 및 문제점

① 정량심사 위주의 획일적 지원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

- 햇살론 등 대표적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연소득, 신용평점 등 정량적 요소 위주로 심사하는 구조로 설계
 - 명확하고 일관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, 수요자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
 - * 예 :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경우에도 소득증빙이 안되거나, 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신용평점 부족으로 거절되는 사례가 있음
- 현장 밀착 지원체제로 운영 중인 미소금융*의 경우에도 소극적·경직적 운영으로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실정

※ 미소금융

- **재원** : 기업·은행 기부금 등
- **전달체계** : 사업수행기관(38개 기관, 163개 지점)이 자체적인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
- **대상/금리** : 신용하위 20%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/ 연 4.5%

- '20년 이후 코로나 등으로 취약계층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데 비해 공급실적이 위축*되고 있어 소극적 운영에 대한 비판 제기
 - * 연평균 공급규모 : ('16~'20년) 3,472억원 → ('21~'25년) 2,932억 / △15.6%
- 특히, 기업·은행 재단의 경우 재원소진 우려로 대출 회수금액 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적 공급기조를 지속

< 연도별 미소금융 대출공급 실적 >

(단위 : 억원)

구분	'10~'15 (연평균)	'16~'20 (연평균)	'21	'22	'23	'24	'25	누계
기업재단	1,369	1,705	1,315	1,330	1,551	1,523	1,442	22,534
은행재단	857	723	664	648	513	482	475	10,682
지역법인	388	1,044	938	951	943	943	945	11,879
합 계	2,615	3,472	2,917	2,928	3,007	2,949	2,862	45,095

② 특히, 청년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상품 부족

- 청년·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햇살론유스,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특화상품을 출시·운영하고 있으나,
 - 전체 정책서민금융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아*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제한적
- * '25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대비 금융취약계층 특화 상품 공급 비중 9.4%
- 미소금융의 경우 09년 출범시 자영업자 집중 지원 구조로 인해 현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자금 수요에 대응 미흡

< 미소금융 자금용도별 실적('25년 말 기준) >

(누계, 단위: 억 원, %)

구분	창업	운영	시설	생계	주거	고용	교육	취약	합계
금액	6,165	31,269	824	2,425	3,199	16	37	1,013	45,095
비중	13.7%	69.4%	1.8%	5.4%	7.1%	0.0%	0.1%	2.2%	100.0%

③ 수도권 대비 지방의 정책서민금융 혜택 격차 심화

- 정책서민금융 누적 공급액 비중이 경기(27%), 서울(17%)으로, 인구가 밀집된 서울·경기권에 편중
 - 지방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수도권보다 낮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방 거주자들이 오히려 더 적은 정책금융 혜택을 받는 불합리 발생
- 특히, 지방 청년 자영업자는 수도권 대비 소득수준과 매출 규모가 낮아 금융부담이 더 큼에도 이를 보완할 정책적 우대장치 부족

Ⅲ. 현장 중심 금융소외계층 지원 방안

기본방향

- ◇ 미소금융의 강점(저금리·현장심사 역량·비금융서비스 연계)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자원 운용을 통한 공급 확대 유도
- ◇ 대내·외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청년·지방 등 금융취약계층 중심으로 현장밀착 자금지원 강화
- ◇ 기존 미소금융을 정책서민금융상품과의 연계 고리로 재편하여 포용금융 플랫폼으로 재정립

추진과제

청년·지방·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

공급 획기적 확대

- 3년내 미소금융 공급규모 3천억→6천억으로 확대 (청년층 3백억→3천억)
- 재단별 공급목표 제시
- 자원활용·관리방안 징구

운영 방식 혁신

- 재단 자원운용 재량부여
 - 경쟁적 상품개발 유도
- “서민금융의 테스트 베드”

상품 체계 개편

- 청년·취약계층 집중 지원
- 지역 청년 우대 강화
- 신용개선 경로 마련

⇒ 「4종 세트」 시범 출시

※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「4종 세트」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청년 미래이음 대출 신설 | ②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|
| ③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차지원 확대 | ④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신설 |

1. 미소금융 공급 획기적 확대

- 향후 3년내 미소금융의 연간 총 공급규모를 現 3,000억원에서 6,000억원까지 확대
 -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비중을 현재 약 10%에서 50%까지 확대 (연간 3,000억원 공급)

구분	현재	28년
미소금융 연간 총 공급규모(A)	3000억원	6000억원
청년층(34세 이하) 공급규모(B)	300억원	3000억원
총 공급규모 중 청년층 비중(B/A)	10%	50%

- 출범 이후 17년간 정체되어 있던 미소금융 공급실적을 증가 하는 취약계층 자금수요에 맞춰 대폭 확대
- 재단별 중장기(3년), 연간, 분기별 공급 목표 및 재원활용·관리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목표 달성률을 정기적으로 공시(분기/반기)
 - 재원 현황(잔존액·회수액) 및 상품별 공급 실적을 매월 모니터링 하여 실수요 대비 공급 여력 등 수시 점검
 - 공급 실적이 우수한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*를 검토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

* 예: 사업수행기관 평가(연 1회)시 가점 부여 및 우수기관 선정

- 민간부문의 과감한 재원활용·확충을 통한 미소금융의 빠르고 적극적인 공급 확대 유도

* 신한은행이 신한미소금융재단에 1,000억원 추가기부 계획 기 발표('26.2월)

* 우리은행은 우리미소금융재단에 1,000억원 규모 추가 출연 예정

2. 창의적 지원방식 경쟁적 개발 유도

- 재단별 노하우와 강점을 살린 창의적 지원방식이 경쟁적으로 개발·확산될 수 있도록 재원의 자율적 활용을 보장
 - 재단별로 보유재원의 일정비율(예 : 20%)은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자활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
 - * 다만, 저신용·저소득자 지원이라는 미소금융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는 미소금융 대상으로 제한
- 우수 아이디어는 재단 간 사례를 공유하고 연도별 시범사업을 선정, 사업성과에 따라 추후 제도화 검토 (서민금융의 테스트베드)
 - 미소금융에도 경쟁과 혁신의 원리를 도입하여 재단별 특화된 다양한 지원상품·방식 개발 기대
 - 현장 중심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도되는 장이 마련되면서 우수사례가 지속 발굴되고 여타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의 개선에도 기여
 - 경연대회, 워크숍 등 현장 중심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굴·확산을 위한 정기적인 채널 마련

※ 예) 현장 종사자 대상 아이디어 경연 대회 개최(연 1회), 우수사례 및 심사 노하우 공유를 위한 워크숍 및 직원교육 정례화

※ 최근 신한은행재단의 경우 성실상환자에 대한 이자 환급, 저축 연계 방식 발표('26.2.4)

- 청년서민금융상품 완제자에 대한 완제 축하금
- 성실상환자에 대한 이자 100% 페이백 지급
- 성실상환자의 저축형성 지원 등

3.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신설

※ 하기 공급규모는 '26년 시범사업 규모로 운영성과 및 향후 자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

1 청년 미래이음 대출 신설

【 사례 : **꼭 막힌 금융의 벽** (20대 취업 준비생 김00씨) 】

- √ 대학 졸업을 앞둔 20대 후반 청년 김00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자격시험 학원비와 거주지 이전비가 필요했으나, 소득증빙이 부족하고 과거 통신요금 연체 이력이 있어 햇살론유스 심사에서 탈락한 상황이다.
- √ 1금융권은 고사하고 저축은행 대출도 어려운 상황, 김 씨의 스마트폰에는 '누구나 즉시 대출'이라는 불법 사채 광고 문자만 쌓여가고 있다.

고졸자·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진입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미소 금융 청년상품 도입

① (지원대상) 사회 진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미취업 또는 취업 초기 청년*

* [개인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& [34세 이하&(미취업 또는 취·창업 1년 이내)]

② (대출·상환조건) 금리 年 4.5% / 대출한도 최대 500만원 / 거치 6년, 상환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

③ (대출심사) 미취업 또는 취업초기 청년인 만큼 현재의 상환능력 보다는 자금용도*·상환의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

* 취업(자격증 취득 등)자금, 소규모 창업자금, (취업 후) 초기 정착자금 등

- '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'을 대출 이용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여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

※ 기존 청년대상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거절자도 이용 가능
[거래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신용평점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음]

'26년 중 300억원 규모 공급(시범운영 후 확대)

2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

【 사례 : **꿈은 크지만 자금은 부족한, 박00씨**(29세, 푸드트럭 운영)】

- √ 2년 전 작은 푸드트럭으로 창업에 도전한 박00씨. 특유의 성실함과 맛으로 단골손님을 확보했지만, 최근 식자재값 폭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. 재료비와 트럭 수리비로 1,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지만, 짧은 업력과 낮은 신용점수 탓에 은행 대출은 불가능했다.
- √ 기존 미소금융 운영자금을 알아봤지만, 한도가 2,000만 원에 불과해 이미 창업 자금 대출이 있는 박 씨에게는 추가 한도가 나오지 않았다. 6개월이라는 짧은 거치기간도 당장 매출이 불안정한 박 씨에게는 큰 부담이다.

□ 보유자금의 제약으로 일시적 자금애로에 쉽게 노출되는 청년 자영업자에 대해 현행 미소금융 운영대출 한도를 확대

① (지원대상) 34세 이하 청년 자영업자*

* 개인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

② (대출조건) 한도 1,000만원 증액, 대출기간 중 거치기간 확대

- (금리) 年 4.5%*(6개월간 이자 면제*)

* 현재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은 미소 운영자금을 이용 중인 영세가맹점주에 대해 대출실행 후 6개월간 전액 이자 지원

- (한도) 기존 2,000만 원 → 최대 3,000만원

- (기간) 거치 6개월, 상환 5년 이내 → 거치 2년, 상환 5년 이내

□ '26년 중 300억원 규모 공급(시범운영 후 확대)

3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

【 사례 : 지방이라 더 서러운, 이00씨(31세, 전북 A시 카페 운영)】

- √ 31세 이00씨(전북 A시 거주)는 지역 전통시장 내 소규모 카페를 운영 중이다. 지방 소도시 특성상 매출 규모가 수도권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연 4.5%의 이자 부담도 경영에 적잖은 압박이 된다.
- √ C씨가 거주하는 A시에서는 지자체 미소금융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일부 이자를페이백 해주고 있으나, 서울·수도권 대비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방 청년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.

□ 미소금융을 이용 중인 청년 자영업자^① 대상, 추가 이자지원 인센티브^② 시범사업 추진

① (지원대상) 이자지원사업*에 참여 중인 지자체 내 거주 중인 미소금융 이용 청년(34세 이하) 자영업자

※ 미소 사업수행기관(기업은행재단, 지역법인) 개별적으로 지자체(16개)와 업무협약을 통해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자지원(2%p~3%p) 중(현재 미소 금융 금리 4.5% → 2.5~1.5% 적용)

② (이자지원 인센티브) 지자체 이자지원에 더하여 서금원에서 지방 거주 청년에 대한 이자지원 추가 인센티브(예: 1.0%p) 제공

※ 추후 행안부 지방우대지수(27년 정부예산안부터 적용 예정)를 활용해 수도권과의 거리, 인구감소 정도 등에 비례한 인센티브 차등화 방안 검토

□ '26년 중 2.6억원 이자 지원(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약 1만명)

-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중으로 추후 공급규모 확대 전망

4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신설

【 사례 :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사다리가 없는, 최00씨(40대 일용직)】

- √ 과거 생활고로 '불법사금융'을 이용했다가 정부의 '불법사금융예방대출'로 **대환**하여 2년간 **성실히 빚을 갚은 40대 최00씨**. 지난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 현장에 나가며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왔으나, **여전히 낮은 신용점수**에 좌절하고 있다.
- √ **당장 겨울철 월세와 생활비** 명목의 생계자금 500만원을 제도권에서 구하지 못하자, E씨는 **다시 불법사금융의 유혹**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.

□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에게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고, 이를 **크레딧 빌드업의 중간 다리**로 활용

① (지원대상) 차상위계층 이하* 또는 “개인 신용평점 하위 50% 이하 & 연소득 3,500만원 이하”이면서 각 추가요건**을 만족한 자

*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

**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,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, 전세사기피해자,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

② (대출조건) 年 4.5% / 최대 500만원

* 거치 최대 1년,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

< 금융배제계층 크레딧 빌드업 체계 >

구분	개편 불법사금융예방대출	미소금융 <small>신설</small>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	개편 징검다리론(은행)
특징	연체자 등 금융배제계층 지원	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지원	정책서민금융 졸업
금리	연 12.5%(완제시 6.3% <small>pay-back*</small>)	연 4.5%	연 9% 內
한도	100만원	500만원	3,000만원

* 불사금 예방대출 완제시 납부이자의 50%를 환급

□ '26년 중 1,000억원 규모 공급(시범운영 후 확대)

IV. 향후 계획

□ 관련 규정 개정 등 필요 조치사항은 최대한 빠르게 추진

- 신규 상품 출시·운영을 위해 지자체 협의, 전산 구축 등 속도감 있게 진행

※ “청년 미래이음 대출”, “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”, “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” 등 3개 상품은 '26.3.31일에 출시하며, “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”사업은 지자체 협의 후 '26.2분기 중 출시

< 조치 필요사항 >

구 분	조치사항	소관
1. 미소금융 공급 획기적 확대		
미소금융 실적 관리 강화	점검체계 마련	금융위서금원
2. 창의적 지원방식 경쟁적 개발 유도		
① 재단 재원운용 재량 부여	협약 개정 등	금융위서금원
② 경쟁적 상품개발 유도	경연대회 개최 등	금융위서금원
3.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신설		
① 청년 미래이음 대출 신설	매뉴얼 개정 등	금융위서금원
②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	매뉴얼 개정 등	금융위서금원
③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 지원 확대	지자체 협의 등	금융위서금원
④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신설	고시 개정 등	금융위서금원